

보도일시 (인터넷) 2023. 7. 6.(목) 11:00,
(지면) 2023. 7. 7.(금) 조간

배포 2023. 7. 6.(목) 06:00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 더 많은 기관이 공유하게 된다

-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시스템’ 이용자 및 활용정보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7일(금)부터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등 23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만 공유가 되었으나, 앞으로는 항만공사, 수협중앙회, 해운조합 등 20개 유관기관까지 총 43개 기관이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를 공유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안전 정보도 지침, 정책동향 등 16개 항목에서 종사자 교육, 안전보건 의무이행, 재해사례 등 11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27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업무망 재난포털, 모바일 단체대화방(가칭 ‘해양수산 재난재해 레이다’)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해양수산 재난·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비상 대처요령이나 현장 대응수칙, 예방·대응 우수사례 등도 해당 채널에서 상시 공유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해양수산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수산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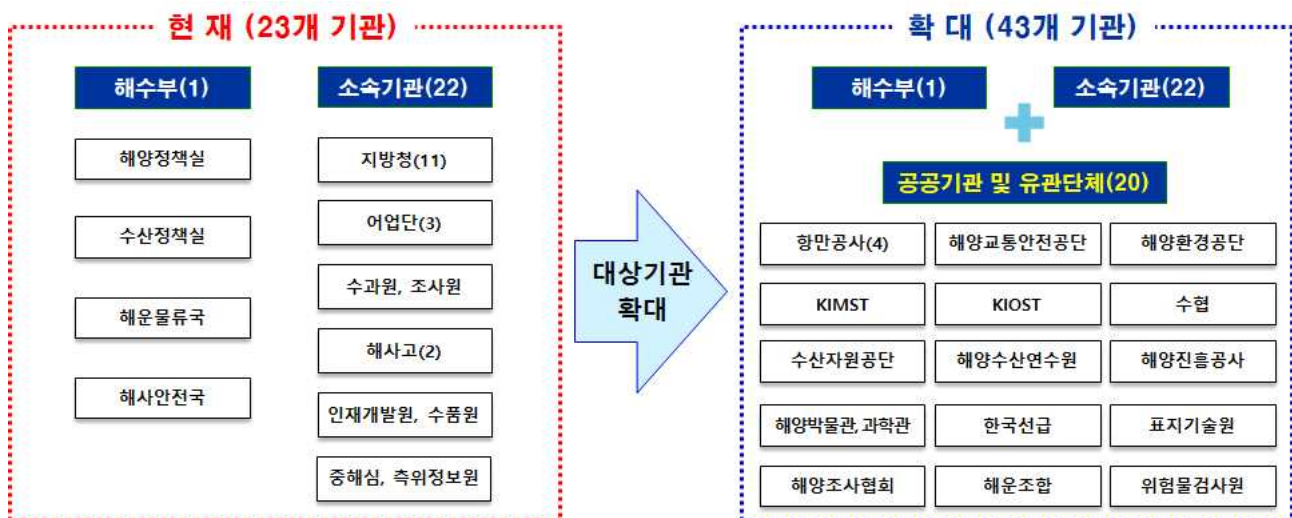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44-200-5850)
		담당자	사무관	문승록 (044-200-5851)

참고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시스템 개편(요약)

□ 대상기관 확대

- (현재) 23개 기관(해양수산부, 소속기관 22)
- (확대) 43개 기관(해양수산부, 소속기관 22, 공공기관·유관단체 20)



□ 정보공유 채널 확대

- (현재) 워크숍, 실무자 회의 등
- (확대) 누리집·단체채팅방(공개정보), 업무망 재난포털(비공개정보)

